Weekly
FX Economist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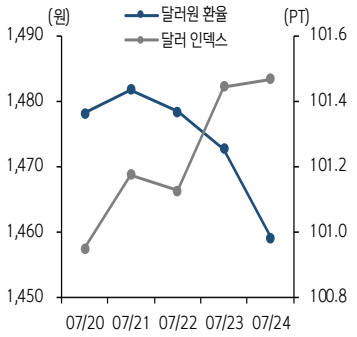
2026-07-27

연준과 빅테크의 가이던스 대처법

FX Talk & Insight : 금주 1,450~1,480원 전망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와 과감한 대응이 그간 꿈쩍 않던 원화 약세 심리를 돌려 놓자, 대외적으로 달러화가 광범위하게 상승했음에도 원화 강세 뚜렷. 반도체 주가의 큰 폭 조정이 역설적으로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수급을 우호적으로 돌려 놓은 것도 원화 강세에 일조. 미국과 이란간 충돌 격화 및 트럼프의 무역법 301조 발동 등이 걸림돌이나 외환시장은 경험했던 변수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듯. 연준의 금리 동결에도 매파적 분위기 우려로 달러화 자체는 힘을 유지할 전망

외환시장



전망치	금주 예상 레인지	
	저점	고점
달러원	1450	1480
달러엔	162.5	164.5
유로달러	1.133	1.148

요즘 원화 환율은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들의 대결구도에서 변하는 것들의 힘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듯한 모습이다. 여기서 변하지 않는 것들은 중동에서 미국과 이란이 충돌하며 휴전이 휴지조각이 되고, 글로벌 관세를 다시 부과하려는 고집스러운 트럼프의 일방주의이다. 반면 변하는 것들의 대표는 반도체 수출과 민간투자가 국내 경제성장을 3%대로 끌어 올리고 있고, 하이닉스 ADR 발행을 게기로 대형 수출기업의 보유 달러가 시장에 출회되며 수급 부담이 경감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다 보니 국내 요인을 반영해 서울 시장에서 낮에는 환율이 떨어지고, 런던으로 넘어간 이후 밤에는 대외 요인을 반영해 반등하는 양상이 최근 들어 반복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렇지만 7월초만 해도 1,560원 돌파를 넘보던 달러-원 환율이 고점을 낮추며 어느덧 1,460원대로 밀리는 등 하락 분위기가 완연해지고 있어 지금은 원화 강세 요인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한국 경제가 오랜만에 잠재 성장을 넘어서고, 하이닉스가 대규모 해외 자금조달이 가능했던 근간은 결국 AI의 생태계에서 반도체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덕분일 수도 있겠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 하이퍼스케일러의 실적과 자본지출 가이던스는 고점 논란에 시달리는 한국 반도체 수출과 증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반면 기술혁명으로 유발되는 생산성 향상과 수급 불안정 등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경을 자극할 수 있어 연준의 가이던스도 주목하게 된다. 결국 빅테크와 연준 간의 가이던스 조합이 점점 중요해진다.

물론 2/4분기 빅테크 실적과 가이던스를 더 열어봐야 하지만 일단 시작은 원화 환율에 우호적이다. 빅테크의 2/4분기 실적 포문을 연 알파벳은 시장에 안도감을 줄 수 있는 결과치를 내놓았다는 점에서 원화 환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알파벳의 EPS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였고, 자본지출 전망치 역시 상향조정했을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AI 관련 투자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AI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빅테크들의 치열한 경쟁을 감안할 경우 하이퍼스케일러의 대규모 투자와 이로 인한 반도체 수요 증가 기대를 뒷받침할 수 있겠다. 만일 대규모 실적과 넉넉한 보유 자금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해지는 선순환 구도가 형성된다면, 메모리 시장에 본격적으로 경쟁하려는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시장은 빅테크 실적 이면에 자리잡은 조달과 비용 문제로 인해 FOMC로 시선을 돌리게 될 것이다. 다행인 점은 우려했던 인플레이션이 경감됨에 따라 7월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어 시장 충격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다만 워시 의장 취임 이후 FOMC에서 시장과의 소통을 절제하고 포워드 가이던스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불확실성으로 인식될 소지도 있다. 사실 예측 오류 위험이 큰 포워드 가이던스를 폐기하는 대신 현재 지표의 정밀도를 개선하려는 워시 의장의 시도를 꼭 부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 다만 연준의 폐쇄성이 높아질 것이고, FOMC 이후 맴버들의 각자 언급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릴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한다. 아무래도 유가가 다시 반등하며 연준내 매파적인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적지 않고, 트럼프가 한국에 대미 투자 청구서를 독촉할 수 있다는 점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Economist 소재용
jyso@shinhan.com
02-2151-2638

Economist 백석현
seokhyun100@shinhan.com
02-2151-26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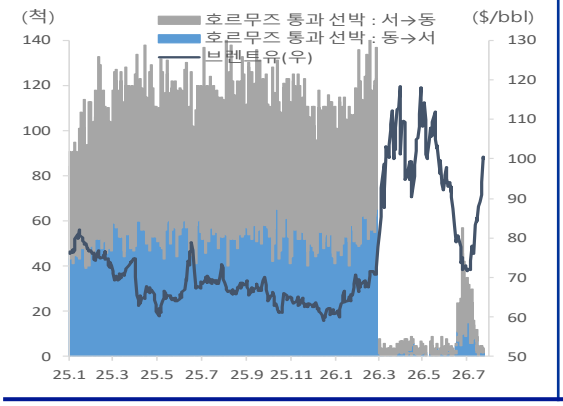
Weekly
FX Economist View
연준과 빅테크의 가이던스 대처법

그림으로 해석하는 매크로 관전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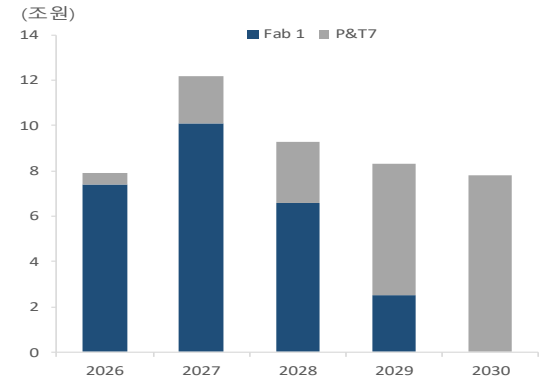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중동 긴장감 재점화된 가운데 휴전 가능성 불확실. 시장 민감도 떨어졌지만 호르므즈 재봉쇄와 유가 상승은 부담

반면 하이닉스 ADR 상장을 계기로 수출기업 물량 출회되며 달러 공급 증가. 하이닉스는 조달 자금 전액을 중장기 반도체 증설에 투입될 계획

호르무즈 재봉쇄 위험으로 반등하는 국제유가



하이닉스가 제시한 ADR 발행 자금 투자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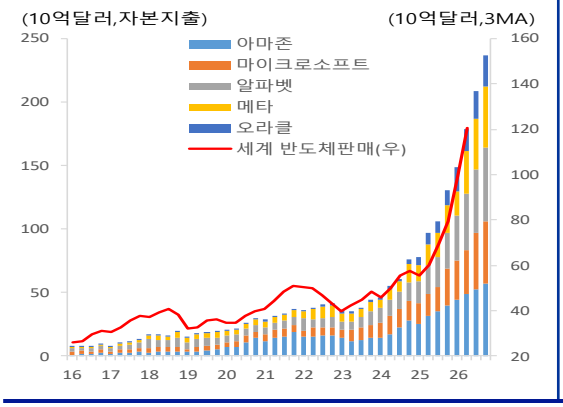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Refinitiv, 신한은행 S&T 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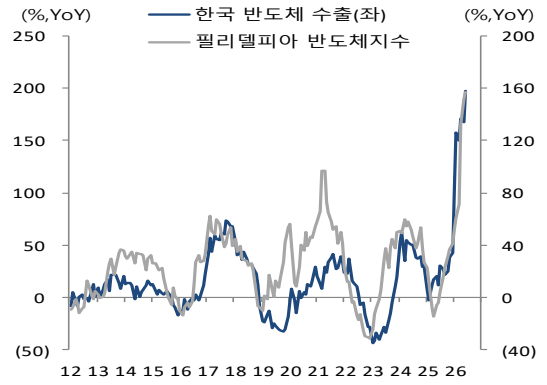
알파벳을 시작으로 미국 빅테크 실적 발표, 반도체 고점 논쟁과 맞물려 증시 및 환율에도 영향력 행사. 알파벳 실적 및 자본지출 모두 예상 상회

반도체 관련 불안감 진정에 기여한 한편 국내경제 성장 견인에도 일조. 성장세 감속 가능성 배제할 수 없지만 빅테크 경쟁으로 피크 아웃 희석

미국 빅테크 실적과 자본지출 가이던스에 민감



고점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반도체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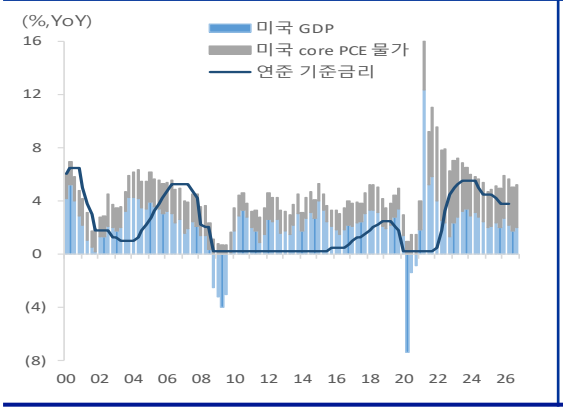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Refinitiv, 신한은행 S&T 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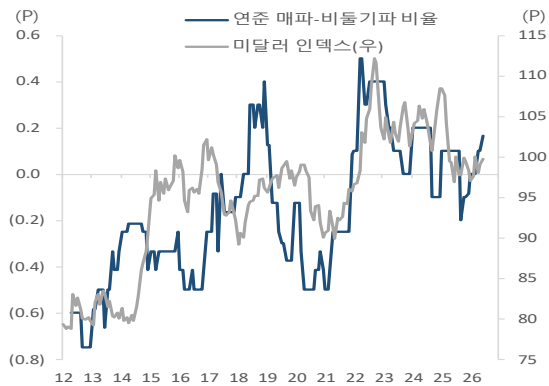
미국 GDP 전분기 대비 2.3%로 양호한 성장 기대, 6월 PCE 물가 전년비 3.6%로 둔화 예상. 7월 FOMC에서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높아

다만 연준의 포워드 가이던스 폐기 및 폐쇄성 높아지는 점 등은 혼란 소지. FOMC 이후 인사들의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 상대적 매파 우세 예상

인하에 비해 더디게 금리를 인상했던 연준



연준의 매파적 분위기 우세시 미달러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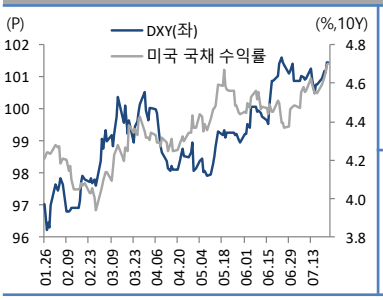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Refinitiv, 신한은행 S&T 센터

Weekly
FX Economist View
연준과 빅테크의 가이던스 대처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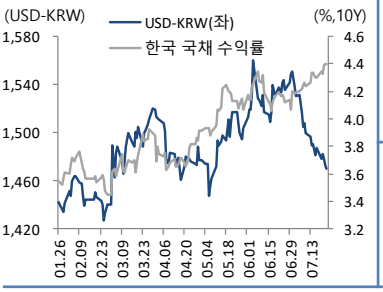
FX Navigator

DXY(미달러 인덱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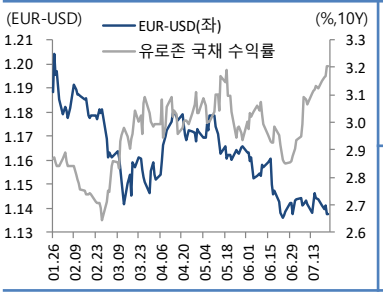
리뷰	미국과 이란간 무력 충돌 격화되면서 중동 긴장감 다시 고조. 국제유가 상승하며 인플레 안도감 희석 소지. 새롭지 않지만 무역법 301조 발동과 관세 부과도 미국 금리 상승에 일조. 알파벳 실적 양호했으나 현금흐름에 대한 우려로 달러 추가 상승 제한
프리뷰	미국 2Q GDP 무난한 성장 예상되고 6월 PCE 물가도 둔화될 것이나 유가와 관세로 FOMC 민감도 더 높아질 소지. 연준 금리동결 예상되나 포워드 가이던스 폐기로 향후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 불가피. 연준내 매파적 분위기 우세로 미달러 지지할 듯

USD-KRW(한국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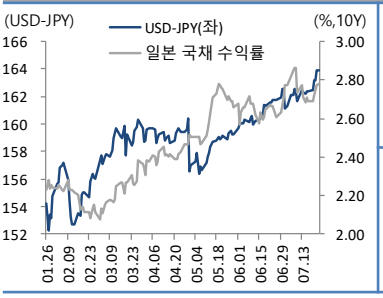
리뷰	당국의 강력한 메시지와 과감한 대응이 그간 꿈쩍않던 원화 약세 심리를 돌려 놓으면서 이번 주 글로벌 달러 강세 국면에서도 환율 하락. 한국 증시의 외국인 수급도 원화에 우호적이었고, 23일에는 1,465원까지 하락한 뒤 주 후반에도 하락 우위
프리뷰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되며 유가와 미국채 금리는 고점을 높이고 있지만 외환시장은 비교적 태연. 유가는 물리적 제약에 반응하지만 외환시장은 이 충돌이 결국 관리될 것으로 보기 때문. 시장 관성 고려하면 원화 강세가 당분간 유지될 수 있다는 판단

EUR-USD(유로화)



리뷰	7월 들어 방향성이 모호했던 유로화가 완만하게 하락하며 주 후반 1.14 하향 돌파.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유가가 상승한 것이 주요 배경. 23일에는 ECB 금리 동결에도 추가 하락. 다만 ECB는 9월 금리 인상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음
프리뷰	미국과 이란이 단기적으로 물러설 조짐이 보이기 전까지는 유가 상승과 함께 유로화 추가 하락 가능. 다만, 외환시장 관점에 미국·이란 충돌은 새로운 충격이 아니라 익숙한 충격이며 결국 관리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유로화 낙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

USD-JPY(일본 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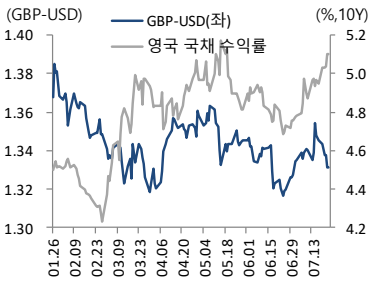
리뷰	한동안 162.5엔에 막혀있던 환율이 21일 오후부터 상승폭을 넓히며 163엔 돌파한 뒤 주 후반에는 164엔에 육박. BOJ가 시장 예상보다 금리 인상 빠를 수 있다는 메시지 내고 일본 당국도 개입을 경고했으나 5월 대규모 개입이 무색했던 탓에 행동은 자제
프리뷰	일본의 재정 확대가 통화정책을 제약(fiscal dominance)한다는 심리로 인해 단기적으로 엔화 약세 압력 지속될 전망. BOJ는 금리 인상을 서두르기 힘든 여건. 일본 당국이 개입하겠지만 개입 효과 높이려면 다른 보완적 수단 마련한 뒤 적절한 때를 노릴 것

자료 : Bloomberg, 신한은행 S&T센터

Weekly
FX Economist View
연준과 빅테크의 가이던스 대처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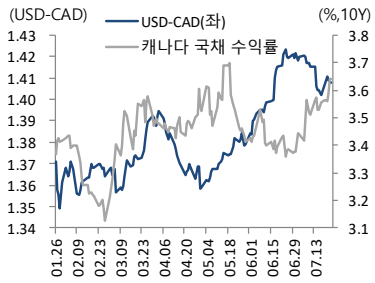
FX Navigator

GBP-USD(영국 파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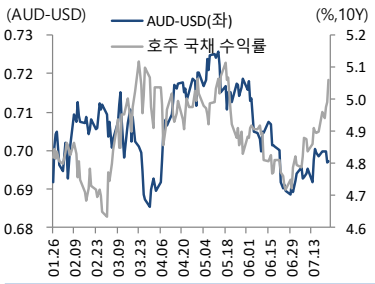
리뷰	영국의 새 총리로 선출된 버넘(Burnham)이 재무장관으로 마무드 내무장관이 물망에 올랐던 15일 1.35를 훌쩍 넘기며 급등했던 GBP가 이후 크게 하락. 재무장관은 당초 예상과 달리 힐리 前 국방장관 임명하며 상승 되돌렸고 미국·이란 충돌 격화도 GBP 하락에 기여
프리뷰	GBP가 6월 하순부터 3주간 USD는 물론 EUR에 대해서도 대폭 상승했으나 새 내각이 윤곽 드러내고 미국·이란 충돌 격화되면서 단기적으로 하락 압력 유효. 새 재무장관의 유연한 재정정책 방침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 의심을 불식하지 못한 것도 GBP에 부담

USD-CAD(캐나다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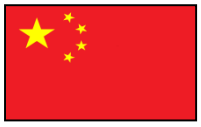


리뷰	7월 들어 모처럼 하락하던 환율이 1.40에서 막히며 20일 반등.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관련 멕시코와 협상 진행 중인 미국이 협상 시작하지 않은 캐나다를 압박하기 위해 일부 캐나다산 수입품에 50% 추가 관세 부과하며 CAD에도 부담 전가
프리뷰	미국이 USMCA 협상에서 우위 점하려 캐나다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압박하고 있으나, 7월 초부터 이어지는 CAD의 완만한 강세가 완전히 꺾이지 않는 인상. 그러나, 최근 양국 국채시장의 미묘한 온도차는 CAD 약세가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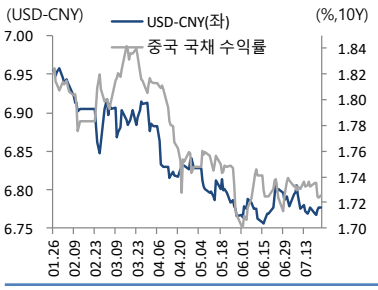
AUD-USD(호주 달러)



리뷰	7월 들어 반등하던 AUD가 15일 0.70 회복한 뒤 추가 상승이 여의치 않은 양상. 1주일간 0.70 중심으로 강한 방향성 없이 들쭉날쭉했으나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되면서 주 후반에는 0.70을 소폭 하회
프리뷰	6월 큰 폭 하락한 AUD가 7월 들어 반등 모색하고 있으나 모멘텀을 잃어가는 국면. 홍해(Red sea)까지 통행 차질 빚어진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단기적으로 물러설 조짐 보이기 전까지는 유가 상승 및 미국채 금리 상승 부담 속에 AUD도 무거운 흐름 유지할 듯



USD-CNY(중국 위안)



리뷰	6월부터 위안화 강세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 1주간 역외 환율(USD/CNH)이 6.77 중심으로 사실상 횡보. 한편, 중국 정부는 AI 및 반도체 기술과 유망 스타트업이 서방 국가에 인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제 강화 검토
프리뷰	중국의 대표적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CXMT 상장을 앞두고 중국 당국이 증시 자금의 중국 내 잔류를 위해 노력 중. 위안화 강세가 재개되기까지는 다소 시간 필요한 듯. 위안화 국제화 기대감 더해져 중기적인 위안화 강세 기조는 유효하다는 판단

자료 : Bloomberg, 신한은행 S&T센터

Weekly
FX Economist View
연준과 빅테크의 가이던스 대처법

금주 발표되는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발표 일정						
	국가	이벤트	기간	예상치	이전치	중요도
7-27-2026 10:30	CH	산업생산 YoY	Jun	--	21.10%	50
7-27-2026 17:00	GE	IFO 기업환경	Jul	--	85.6	98
7-27-2026 21:30	US	내구재 주문	Jun P	1.50%	-4.50%	91
7-28-2026 6:00	SK	소비자심리지수	Jul	--	106.6	61
7-28-2026 22:00	US	FHFA 주택가격지수 MoM	May	--	-0.10%	71
7-28-2026 23:00	US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지수	Jul	92	91.2	92
7-29-2026 10:30	AU	CPI 전년비	Jun	--	4.00%	79
7-30-2026 3:00	US	FOMC 금리 결정 (상한)	29-Jul	3.75%	3.75%	98
7-30-2026 18:00	EC	GDP SA (전기대비)	2Q A	--	-0.20%	90
7-30-2026 18:00	EC	실업률	Jun	--	6.20%	69
7-30-2026 20:00	UK	영란은행 기준금리	30-Jul	--	3.75%	99
7-30-2026 21:30	US	개인소득	Jun	0.30%	0.70%	87
7-30-2026 21:30	US	개인소비지수	Jun	0.40%	0.70%	87
7-30-2026 21:30	US	PCE 물가지수 YoY	Jun	3.60%	4.10%	63
7-30-2026 21:30	US	GDP 연간화 QoQ	2Q A	2.30%	2.10%	97
7-31-2026 8:00	SK	광공업생산 YoY	Jun	--	-0.90%	82
7-31-2026 8:30	JN	도쿄 CPI (전년대비)	Jul	1.80%	1.70%	73
7-31-2026 8:30	JN	실업률	Jun	2.50%	2.50%	97
7-31-2026 10:30	CH	제조업 PMI	Jul	49.9	50.3	94
7-31-2026 10:30	CH	비제조업 PMI	Jul	50	50.2	75
7-31-2026 18:00	EC	CPI 예상 YoY	Jul P	--	2.80%	76
7-31-2026 23:00	US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신뢰	Jul F	--	54.4	95
7/31/2026	JN	BOJ 정책 금리	31-Jul	1.00%	1.00%	99
8-01-2026 9:00	SK	수출 YoY	Jul	--	70.90%	92
8-01-2026 9:00	SK	무역수지	Jul	--	$36149m	63

자료 : Bloomberg, 신한은행 S&T센터
주 : 날짜 및 시간은 한국 기준/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중요도는 숫자가 높을수록 중요한 지표로 평가
US(미국), EC(유로존), UK(영국), GE(독일), JN(일본), CH(중국), CA(캐나다), AU(호주), SK(대한민국)

서울 외환시장

(단위 : 원)

구분	달러/원	위안/원
시가	1,475.5	217.2
고가	1,476.3	217.2
저가	1,458.5	215.8
종가[1)]	1,466.6	216.3
전일비	-0.2	-0.3
평균환율	1,466.3	216.1
NDF(1M)	1,459.0	
거래량	132(억불)	93(억위안)

1) 서울외환시장 3시 30분 종가

주요 통화 환율

통화	환율	전일비
USD/KRW	1,459.00	-13.65
JPY/KRW	890.96	-9.52
EUR/KRW	1,659.92	-18.73
GBP/KRW	1,944.47	-20.22
AUD/KRW	1,019.12	-8.99
CAD/KRW	1,035.83	-11.85
USD/JPY	163.83	-0.03
EUR/USD	1.1370	-0.0007

금리 장외파생상품 (원화)

(단위 : %)

만기	IRS	전일비	CRS[2)]	전일비
1Y	3.505	0.027	3.260	0.16
2Y	3.884	0.036	3.440	0.11
3Y	4.026	0.040	3.575	0.09
4Y	4.104	0.049	3.640	0.07
5Y	4.161	0.054	3.680	0.06
7Y	4.225	0.046	3.720	0.06
10Y	4.281	0.041	3.625	0.06

2) 3개월 주기로 무위험지표 복리평균금리(Compounded SOFR) 3개월물과 교환되는 원화 고정금리

기준 금리 및 채권금리 (원화)

구분	종가	전일비
CD 91일물	2.91	0.00
통안 1년	2.18	+0.01
통안 2년	3.81	+0.03
국고채 3년	3.95	+0.04
국고채 5년	4.21	+0.05
국고채 10년	4.45	+0.05
국고채선물(3년)	102.68	+0.08

단기 FX Swap Point (원화)

(단위 : 전)

만기	SWAP Point	전일비	Implied CRS
1M	-30	30.00	3.52%
3M	-230	40.00	3.21%
6M	-580	70.00	3.22%
1Y	-1,300	60.00	3.29%

금리 장외파생상품 (미국)

(단위 : %)

만기	국채	전일비	IRS[3)]	전일비
1Y	4.11	0.007	4.15	0.024
2Y	4.33	0.033	4.17	0.024
3Y	4.36	0.026	4.15	0.020
5Y	4.43	0.022	4.14	0.019
10Y	4.68	0.023	4.25	0.016

3) 1년 주기로 무위험지표 복리평균금리(Compounded SOFR) 1년물과 교환되는 달러 고정금리

주요 증시

증시	종가	전일비	
KOSPI	6,690.62	-406.27	-5.72%
미국 DOW	51,947.25	+235.60	+0.46%
중국 상해종합	3,814.20	-62.58	-1.61%
일본 NIKKEI 225	64,611.15	-1,811.45	-2.73%
영국 FTSE 100	10,736.23	+97.06	+0.91%

기타

종목	종가	전일비
WTI (선물)	89.31	-2.88
금 (선물)	4,070.80	+20.60
3M TERM SOFR	3.84	+0.03
3M EURIBOR	2.49	+0.02
KOR 5Y CDS	23.33	+0.56

· 본 자료는 자료 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고객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매매는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되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행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행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 될 수 없습니다.